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5호 【루게 제25148호】 주제 105 (2016)년 1월 5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들의 포사격경기를 보시였다

은 나라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의 장엄한 진군길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들사이의 포사격경기가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포사격경기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 인민무력부장인 룡군대장 박영식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룡군대장 리영길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인 룡군중장 림광일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겸 화력지원국장인 룡군중장 박정현 동지, 조선인민군 포병국장인 룡군중장 윤영식 동지가 맞이하였다.

서홍찬 동지, 노광철 동지, 조남진 동지, 림철성 동지, 조경철 동지를 비롯한 인민군당위원회 집행위원들과 대련합부대 포병지휘관들이 경기를 보았다.

포사격경기는 조선인민군 제4차 포병대회에서 포사격을 시사없이 단발명중할데 대하여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지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대련합부대별 단문포사격경기를 저격무기와 같이 점수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진행함으로써 포병 훈련의 형식과 내용, 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포병들속에서 명포수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켜올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포병무력강화의 자랑찬 성과로 맞이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경기는 추첨으로 정한 대련합부대별 사격순차에 따라 각종 구경의 포들로 제정된 거리에서 점수가 표시된 원목표를 사격한 다음 사격성적과 화력임무수행에 걸린 시간을 종합하여 순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경기에는 조선인민군 제966대련합부대,



제313대련합부대, 제567대련합부대, 제526대련합부대, 제233대련합부대, 제549대련합부대, 제324대련합부대, 제593대련합부대, 제287대련합부대 관하 포병구분대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감시소에서 단문포사격경기진행순차와 방법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경기를 보시였다. 사격구명이 내리자 하늘땅을 진감하는 포성과 함께 원숙격렬의 의지가 만장약된 포탄들이 창공을 가르며 날아가 목표물을 타격하였다.

경기참가자들은 평시훈련을 통하여 다져온 포사격술로 명중포성을 러침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조급이라도 건드리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릴 백두산혁명강군의 멸적의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의 미더운 포병들이 포를 정말 잘 쏜다고 환하게 웃으시며 마치도 잘 훈련된 저격

무기사수들이 점수판을 정확히 맞히는 것만 같다고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단문포사격 경기를 통하여 대련합부대들에서 포병싸움 준비에 얼마나 큰 힘을 넣고있는가를 잘 알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경기성적은 단순한 포사격점수가 아니라 당의 훈련제일주의방침을 대하는 지휘관들과 포병들의 판결과 림장, 당에 대한 충정심의 높이를 보여주는 척도이며 훈련장에서 그들이 흘린 땀방울의 무게에 대한 평가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늘 진행한 단문포사격경기는 시사없이 포탄을 단발명중시키는데서 아주 좋은 훈련방법이라고 하시면서 훈련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훈련형식과 내용, 방법을 적극 탐구하여 훈련의 질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기에서는 조선인민군 제966대련합부대가 1등, 조선인민군 제549대련합

부대가 2등, 조선인민군 제593대련합부대가 3등을 쟁취하였다.

또한 조선인민군 제287대련합부대, 제313대련합부대, 제324대련합부대, 제567대련합부대, 제233대련합부대, 제526대련합부대의 순위로 경기등수가 결정되였다.

우수한 단위들과 군인들에게 명포수상장, 명포수메달, 명포수휘장이 수여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인민군대에 실용적훈련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린 결과 지휘관들과 군인들속에서 훈련열의가 비상이 높아지고 훈련들이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진행되고있다고 하시면서 오늘 진행한 단문포사격경기가 이것을 실증해주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단문포사격경기에 참가한 지휘관들과 포병들이 높은 포사격술을 남김없이 보여줌으로써

새해의 진군길에서 장엄한 첫 포성을 울리였다고 하시면서 경기참가자들에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시였으며 대를 두고 잊지 못할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 인민군당위원회 집행위원들, 대련합부대 포병지휘관들앞에서 현대전은 포병전이며 포병싸움준비이자 인민군대의 싸움준비라는것을 항상 명심할데 대한 문제, 포의 기동력을 최대한 높이고 포사격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철저히 보장할데 대한 문제, 각종 포무기들의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되고 그 성능이 높아지는데 맞게 훈련형식과 내용,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할데 대한 문제 등 주제적포병무력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포병무력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포사격의 명중률을 높이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는 명포수운동안에서 무도의 영웅포병들을 따라배우기 위한 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모든 포병부대, 구분대의 지휘관들과 포병들이 당의 훈련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백두산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포병무력을 질적으로 더욱 강화함으로써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철옹성같이 보위해가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사격경기참가자들은 정초부터 선군혁명명도의 길에 제시면서 일당백포병들이 멸적의 포성을 힘차게 울리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고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훈련장에 충정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침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명중포성으로 빛내어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정론 우리 지하전동차 1호

기다렸다. 손님들을 실고고려고 언 해연방 꼬리를 물고 지하전동차들이 오고갔고 한자리에 묵묵히 서 있었다.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 지하전 동차를 보고싶어, 어서빨리 거기에 몸을 실고 이 커다란 지구를 맞추기 이라도 널뛰어 달리고 싶어서 한시가 새 로운 마음이었다.

짧고 힘있고 배역있는 미남자가 소 리치며 마추 달리듯 마침내 《봉-》 하고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며 우리 지하전동차 1호가 도착할 때에는 온 역구내를 휘둥둥처럼 격렬하게 심 장이 환호했다. 지하전동차의 역들마다 에서 수십, 수백의 노동자들은 일시에 봉날같은 환호로 반격하고 반대방 향으로 떠나야 할 사람들도 저지하며 명절나들이에 바쁜 걸음을 돌리며 보 여주었다. 그저 울라만하지 아니라 그 러운 목격자에 의해 외향도 안겨들 고 뛰어들었다.

참으로 눈부시게 황홀했다. 온빛바 랑에 짧은 선을 띠고 검정무늬로 단 장한 동체의 결모습부터 신사적이지 않 지런한 동태가 현대적인 조종수단 들이 설비된 운전실은 말할것도 없고 객차안에서 울리며 놀리는 손잡이들도 한민 잠으면 눈고 싶지 않게 아름다운 정성을 불어넣었다. 해당 역들의 특 징까지 사진과 함께 발붙여 보여주는 정보안내판에서는 날짜와 시간, 주행 상태와 온도까지 실시간으로 알려 주고 그 옆에는 도착화면이라는 여 러가지 상식들을 포함한 동화상자 들이 힘있게 방영되는가 하면 하루 종일 사무를 보는 사람들이 울려 앉 은 신의자이며 아름답고 산뜻한 의 자들들로 꾸며진 객차안은 그야말로 눈을 부비며 보고 또 보아도 회한하 기만 했다.

그처럼 맛있는 별세상에 새집들이 한전처럼 우리 인민 모두가 정말 좋아한다. 목격자에 도착하여 정자 로 올라가던 사람들이 우리 지하전동 차가 역에 도착한 것을 보고 자랑하듯 미치듯 다시 내려와 울라만이라는 이 야기, 종결까지 왔어도 그냥 내리지 않는 사람들때문에 이제 끝 다지 퍼 나리 그 때 또 다시시라는 말이 새 안내판처럼 생겨났다. 판시선원들의 출근을 하소인, 손자들을 데리고 우 리 지하전동차를 보러 우정 나왔다는 할머니가 있는가 하면 새해 첫날에 이처럼 맛있는 전동차를 데리고 온 한해 복이 넘칠것이라고 으쓱하게 자랑 하는 젊은이들도 있다.

황홀해서만이었겠는가. 아무리 화려하고 발전된것이라 한들 남의 것이라면 그렇게 목에이는 격정을 느끼었겠는가.

우리 지하전동차! 조용히 외외 도, 소리쳐들려도 국제경기에 나선 제살살이를 바라볼 때처럼 가슴이 울 령이었다. 패속으로 달리는 전동차의 동음에 《조선야 달려라!》라고 우리 선수를 응원할 때처럼 열방의 꿈들 를 향하고 우승의 단상에 높이 오르 는 공화국기를 볼 때처럼 눈시를 드 집던 사람들이 어찌 지허양에만 있 었다고 하랴.

이해의 양력설계들은 가는 곳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의것이 차 곁드쳐 더욱 뛰드르게 환호로왔다. 참대처럼 푸른 하늘을 훨훨 날아는 경비행기들도 우리 손으로 만든것이 고 꽃들의 식로상점들과 매대물에도 그득그득 넘쳐나는 제품들도 모두 우 리 인민의 요구와 기호에 맞게 우리 정성, 우리 향성, 우리 땀으로 만든것 이다. 노래소리, 웃음소리 그칠줄 모 르는 대중공연의 종합봉사인 《무지 개》호도 우리의것, 기쁨과 행복으로 잠 못 드는 현대적인 거리의 살림집 들과 유흥장들, 온 나라 전체 인민에 게 문을 활짝 열어놓은 세계최상급 의 과학기술전당도 우리의 설계, 우 리의 기술, 우리의 힘으로 창조된 만 점적물들이었다.

세상을 둘러보면 이런 자신성, 이런 힘이 없애 굴욕을 강요당하고 눈드고 서민지장을 혁명의 기본방식, 국가의 유일한 생산방식은 내세웠왔으며 는 그 가장 높은 발전단계로서 현 대화이자 국산화라는 문명상조의 기 치를 높이 추구해온것이다.

인민의 모든 꿈이 자강력에 달려 있다. 꿈이 배일이라면 자강력은 오 늘이고 자기개발이 꿈이라면 자강력 은 태열이다.

건국의 첫 기술에서부터 오늘까지 언제 한때 남에게 굴러받아야 하는 우리 당의 믿음의 시선, 순간도 내려 본적 없는 그 역적의 손길을 우러르 는 인민의 의지력으로 나라를 일떠 세우고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오신 우리 수령님들의 눈시울을 눈물로 집 게 어려온다. 사대와 교조로 세기를 이어오며 굴욕과 망국의 비운을 들 썌지 않았던 안이었던 나라, 남들이

자기 문명과 힘의 상징으로 기차와 군함, 비행기와 대포를 그려넣을 때 같고 동소로밖에 제모습을 나타낼수 없었던 약소국을 아시아의 공명강 국, 자력생성의 모범의 나라로 세계 에 명성떨치게 해주신분은 우리 수령님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강력의 상징으로 힘 이차게 내달리는 《붉은기》1호전기기 판차가 어떻게 태어났던가. 안에서는 폐허만 남은 조선에서 건질것은 현 실불이와 낡은밖에 없다. 믿을것은 큰 나라들뿐이라고 께치는 종파사대 주의자들이 도전해나서고 밖에서는 《풍을 먹자면 이빨이 있어야 한다.》 는 비방질을 해대며 대국주의자들이 해방을 놓아 아직 주변의 큰 나라에 서도 만들지 못하는 전기기관차를 자 하려고 남의것은 벌레 모방이고 파겨 이며 예측이다. 세계의 어느것보다 유 월한 새것이 최고라고 할 때 그것이 이 반드시 제법으로 창조된것이어야 만 하는것은 이데올로기, 제정신을 못 가진 사람들이 현대적인것이면 어느 것이나 다 문명인종로 앞지란 존엄을 귀중히 여기고 미래를 사랑하는 인민 은 고려할수록 자기에 대한 허무감과 자강감을 더욱 부수시키는 남의것을 가장 위험하게 여긴다.

우리의것, 이것은 이 나라 인민이 언제나 안고 사는 소원이다. 그것이 천으로, 만으로 끊음이 높아지고 하 나하나가 세계최고의것으로 되는것이 인민의 꿈이다.

그 열망은 내 조국에 한가지라도 더 보탬을 주려는 애국의 꿈을 낳고 그 자신은 남에게 구걸하는것이 아 니라 당당하게 존엄하며 살려는 자 리의 꿈을 꾸며 그 야심은 세계에 앞 서나가기려는 장성의 꿈에 언제나 살 고있다.

남의 힘으로는 절대로 꿈을 이루지 못한다. 제국주의시대에 우승의 단 상이 하나이듯이 문명을 이루는 때 소들도 최고는 하나뿐이다. 그런 하나 는 남에게서 오는 절대로 가질수 없다. 아무리 빈껍데기과 발전된것이라고 하여도 남의것은 벌레 모방이고 파겨 이며 예측이다. 세계의 어느것보다 유 월한 새것이 최고라고 할 때 그것이 이 반드시 제법으로 창조된것이어야 만 하는것은 이데올로기, 제정신을 못 가진 사람들이 현대적인것이면 어느 것이나 다 문명인종로 앞지란 존엄을 귀중히 여기고 미래를 사랑하는 인민 은 고려할수록 자기에 대한 허무감과 자강감을 더욱 부수시키는 남의것을 가장 위험하게 여긴다.

우리의것, 이것은 이 나라 인민이 언제나 안고 사는 소원이다. 그것이 천으로, 만으로 끊음이 높아지고 하 나하나가 세계최고의것으로 되는것이 인민의 꿈이다.

그 열망은 내 조국에 한가지라도 더 보탬을 주려는 애국의 꿈을 낳고 그 자신은 남에게 구걸하는것이 아 니라 당당하게 존엄하며 살려는 자 리의 꿈을 꾸며 그 야심은 세계에 앞 서나가기려는 장성의 꿈에 언제나 살 고있다.

남의 힘으로는 절대로 꿈을 이루지 못한다. 제국주의시대에 우승의 단 상이 하나이듯이 문명을 이루는 때 소들도 최고는 하나뿐이다. 그런 하나 는 남에게서 오는 절대로 가질수 없다. 아무리 빈껍데기과 발전된것이라고 하여도 남의것은 벌레 모방이고 파겨 이며 예측이다. 세계의 어느것보다 유 월한 새것이 최고라고 할 때 그것이 이 반드시 제법으로 창조된것이어야 만 하는것은 이데올로기, 제정신을 못 가진 사람들이 현대적인것이면 어느 것이나 다 문명인종로 앞지란 존엄을 귀중히 여기고 미래를 사랑하는 인민 은 고려할수록 자기에 대한 허무감과 자강감을 더욱 부수시키는 남의것을 가장 위험하게 여긴다.

우리의것, 이것은 이 나라 인민이 언제나 안고 사는 소원이다. 그것이 천으로, 만으로 끊음이 높아지고 하 나하나가 세계최고의것으로 되는것이 인민의 꿈이다.

그 열망은 내 조국에 한가지라도 더 보탬을 주려는 애국의 꿈을 낳고 그 자신은 남에게 구걸하는것이 아 니라 당당하게 존엄하며 살려는 자 리의 꿈을 꾸며 그 야심은 세계에 앞 서나가기려는 장성의 꿈에 언제나 살 고있다.

남의 힘으로는 절대로 꿈을 이루지 못한다. 제국주의시대에 우승의 단 상이 하나이듯이 문명을 이루는 때 소들도 최고는 하나뿐이다. 그런 하나 는 남에게서 오는 절대로 가질수 없다. 아무리 빈껍데기과 발전된것이라고 하여도 남의것은 벌레 모방이고 파겨 이며 예측이다. 세계의 어느것보다 유 월한 새것이 최고라고 할 때 그것이 이 반드시 제법으로 창조된것이어야 만 하는것은 이데올로기, 제정신을 못 가진 사람들이 현대적인것이면 어느 것이나 다 문명인종로 앞지란 존엄을 귀중히 여기고 미래를 사랑하는 인민 은 고려할수록 자기에 대한 허무감과 자강감을 더욱 부수시키는 남의것을 가장 위험하게 여긴다.

우리의것, 이것은 이 나라 인민이 언제나 안고 사는 소원이다. 그것이 천으로, 만으로 끊음이 높아지고 하 나하나가 세계최고의것으로 되는것이 인민의 꿈이다.

그 열망은 내 조국에 한가지라도 더 보탬을 주려는 애국의 꿈을 낳고 그 자신은 남에게 구걸하는것이 아 니라 당당하게 존엄하며 살려는 자 리의 꿈을 꾸며 그 야심은 세계에 앞 서나가기려는 장성의 꿈에 언제나 살 고있다.

남의 힘으로는 절대로 꿈을 이루지 못한다. 제국주의시대에 우승의 단 상이 하나이듯이 문명을 이루는 때 소들도 최고는 하나뿐이다. 그런 하나 는 남에게서 오는 절대로 가질수 없다. 아무리 빈껍데기과 발전된것이라고 하여도 남의것은 벌레 모방이고 파겨 이며 예측이다. 세계의 어느것보다 유 월한 새것이 최고라고 할 때 그것이 이 반드시 제법으로 창조된것이어야 만 하는것은 이데올로기, 제정신을 못 가진 사람들이 현대적인것이면 어느 것이나 다 문명인종로 앞지란 존엄을 귀중히 여기고 미래를 사랑하는 인민 은 고려할수록 자기에 대한 허무감과 자강감을 더욱 부수시키는 남의것을 가장 위험하게 여긴다.

우리의것, 이것은 이 나라 인민이 언제나 안고 사는 소원이다. 그것이 천으로, 만으로 끊음이 높아지고 하 나하나가 세계최고의것으로 되는것이 인민의 꿈이다.

그 열망은 내 조국에 한가지라도 더 보탬을 주려는 애국의 꿈을 낳고 그 자신은 남에게 구걸하는것이 아 니라 당당하게 존엄하며 살려는 자 리의 꿈을 꾸며 그 야심은 세계에 앞 서나가기려는 장성의 꿈에 언제나 살 고있다.

남의 힘으로는 절대로 꿈을 이루지 못한다. 제국주의시대에 우승의 단 상이 하나이듯이 문명을 이루는 때 소들도 최고는 하나뿐이다. 그런 하나 는 남에게서 오는 절대로 가질수 없다. 아무리 빈껍데기과 발전된것이라고 하여도 남의것은 벌레 모방이고 파겨 이며 예측이다. 세계의 어느것보다 유 월한 새것이 최고라고 할 때 그것이 이 반드시 제법으로 창조된것이어야 만 하는것은 이데올로기, 제정신을 못 가진 사람들이 현대적인것이면 어느 것이나 다 문명인종로 앞지란 존엄을 귀중히 여기고 미래를 사랑하는 인민 은 고려할수록 자기에 대한 허무감과 자강감을 더욱 부수시키는 남의것을 가장 위험하게 여긴다.

우리의것, 이것은 이 나라 인민이 언제나 안고 사는 소원이다. 그것이 천으로, 만으로 끊음이 높아지고 하 나하나가 세계최고의것으로 되는것이 인민의 꿈이다.

그 열망은 내 조국에 한가지라도 더 보탬을 주려는 애국의 꿈을 낳고 그 자신은 남에게 구걸하는것이 아 니라 당당하게 존엄하며 살려는 자 리의 꿈을 꾸며 그 야심은 세계에 앞 서나가기려는 장성의 꿈에 언제나 살 고있다.

남의 힘으로는 절대로 꿈을 이루지 못한다. 제국주의시대에 우승의 단 상이 하나이듯이 문명을 이루는 때 소들도 최고는 하나뿐이다. 그런 하나 는 남에게서 오는 절대로 가질수 없다. 아무리 빈껍데기과 발전된것이라고 하여도 남의것은 벌레 모방이고 파겨 이며 예측이다. 세계의 어느것보다 유 월한 새것이 최고라고 할 때 그것이 이 반드시 제법으로 창조된것이어야 만 하는것은 이데올로기, 제정신을 못 가진 사람들이 현대적인것이면 어느 것이나 다 문명인종로 앞지란 존엄을 귀중히 여기고 미래를 사랑하는 인민 은 고려할수록 자기에 대한 허무감과 자강감을 더욱 부수시키는 남의것을 가장 위험하게 여긴다.

우리의것, 이것은 이 나라 인민이 언제나 안고 사는 소원이다. 그것이 천으로, 만으로 끊음이 높아지고 하 나하나가 세계최고의것으로 되는것이 인민의 꿈이다.

그 열망은 내 조국에 한가지라도 더 보탬을 주려는 애국의 꿈을 낳고 그 자신은 남에게 구걸하는것이 아 니라 당당하게 존엄하며 살려는 자 리의 꿈을 꾸며 그 야심은 세계에 앞 서나가기려는 장성의 꿈에 언제나 살 고있다.

남의 힘으로는 절대로 꿈을 이루지 못한다. 제국주의시대에 우승의 단 상이 하나이듯이 문명을 이루는 때 소들도 최고는 하나뿐이다. 그런 하나 는 남에게서 오는 절대로 가질수 없다. 아무리 빈껍데기과 발전된것이라고 하여도 남의것은 벌레 모방이고 파겨 이며 예측이다. 세계의 어느것보다 유 월한 새것이 최고라고 할 때 그것이 이 반드시 제법으로 창조된것이어야 만 하는것은 이데올로기, 제정신을 못 가진 사람들이 현대적인것이면 어느 것이나 다 문명인종로 앞지란 존엄을 귀중히 여기고 미래를 사랑하는 인민 은 고려할수록 자기에 대한 허무감과 자강감을 더욱 부수시키는 남의것을 가장 위험하게 여긴다.

우리의것, 이것은 이 나라 인민이 언제나 안고 사는 소원이다. 그것이 천으로, 만으로 끊음이 높아지고 하 나하나가 세계최고의것으로 되는것이 인민의 꿈이다.

그 열망은 내 조국에 한가지라도 더 보탬을 주려는 애국의 꿈을 낳고 그 자신은 남에게 구걸하는것이 아 니라 당당하게 존엄하며 살려는 자 리의 꿈을 꾸며 그 야심은 세계에 앞 서나가기려는 장성의 꿈에 언제나 살 고있다.

남의 힘으로는 절대로 꿈을 이루지 못한다. 제국주의시대에 우승의 단 상이 하나이듯이 문명을 이루는 때 소들도 최고는 하나뿐이다. 그런 하나 는 남에게서 오는 절대로 가질수 없다. 아무리 빈껍데기과 발전된것이라고 하여도 남의것은 벌레 모방이고 파겨 이며 예측이다. 세계의 어느것보다 유 월한 새것이 최고라고 할 때 그것이 이 반드시 제법으로 창조된것이어야 만 하는것은 이데올로기, 제정신을 못 가진 사람들이 현대적인것이면 어느 것이나 다 문명인종로 앞지란 존엄을 귀중히 여기고 미래를 사랑하는 인민 은 고려할수록 자기에 대한 허무감과 자강감을 더욱 부수시키는 남의것을 가장 위험하게 여긴다.

우리의것, 이것은 이 나라 인민이 언제나 안고 사는 소원이다. 그것이 천으로, 만으로 끊음이 높아지고 하 나하나가 세계최고의것으로 되는것이 인민의 꿈이다.

그 열망은 내 조국에 한가지라도 더 보탬을 주려는 애국의 꿈을 낳고 그 자신은 남에게 구걸하는것이 아 니라 당당하게 존엄하며 살려는 자 리의 꿈을 꾸며 그 야심은 세계에 앞 서나가기려는 장성의 꿈에 언제나 살 고있다.

남의 힘으로는 절대로 꿈을 이루지 못한다. 제국주의시대에 우승의 단 상이 하나이듯이 문명을 이루는 때 소들도 최고는 하나뿐이다. 그런 하나 는 남에게서 오는 절대로 가질수 없다. 아무리 빈껍데기과 발전된것이라고 하여도 남의것은 벌레 모방이고 파겨 이며 예측이다. 세계의 어느것보다 유 월한 새것이 최고라고 할 때 그것이 이 반드시 제법으로 창조된것이어야 만 하는것은 이데올로기, 제정신을 못 가진 사람들이 현대적인것이면 어느 것이나 다 문명인종로 앞지란 존엄을 귀중히 여기고 미래를 사랑하는 인민 은 고려할수록 자기에 대한 허무감과 자강감을 더욱 부수시키는 남의것을 가장 위험하게 여긴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만 마련 방공 화 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나이배도 만 마련 방공 화 국 대통령 레인 세 인 각 하

나는 만마독립 68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5(2016)년 1월 4일 평 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을 현지지도하신 10돐 기념보고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을 현지지도하신 10돐 기념보고회가 4일에 진행되 었다.

대학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이 참가한 보고회에서는 백범형제대학 원위원회 비서기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제 95(2006)년 1월 4일 현지지도는 김책공업종합 대학이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강성국가건설에서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데서 전진적기회를 열어놓은 력사적 사변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은 나라의 과학기술인재양성의 원동장이며 우리 나라 창조산업혁명의 개척 자입니다.》

보고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 로 일떠선 전진도사관을 돌아보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을 현지지도하신 10돐 기념보고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을 현지지도하신 10돐 기념보고회가 4일에 진행되 었다.

대학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이 참가한 보고회에서는 백범형제대학 원위원회 비서기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제 95(2006)년 1월 4일 현지지도는 김책공업종합 대학이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강성국가건설에서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데서 전진적기회를 열어놓은 력사적 사변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은 나라의 과학기술인재양성의 원동장이며 우리 나라 창조산업혁명의 개척 자입니다.》

보고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 로 일떠선 전진도사관을 돌아보시

올해에 우리 당과 인민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적구호 를 높이 받들고 올해의 총공격전에서 영웅적유훈을 떨쳐나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선기 를 열어내자!》, 이것이 우리 당과 인민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 인이다.》

당의 구호는 인민대중의 지향파 의사, 시대와 혁명의 요구를 구현하여 명찬한 투쟁목표와 방향, 과업과 방 도 등을 밝힌 고귀한 지침이다. 대중의 뜻을 격동시켜 온 나라를 비약과 혁 신으로 뚝뚝하게 한다는데 당의 구호의 위력이 있다.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선기 를 열어내자!》, 이 구호를 높이 들고나 갈 때 주제 105(2016)년을 승리와 영광으로 빛낼수 있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일념이다.

올해의 전투적구호는 주제혁명위업 수행에서 획기적의를 가지게 될 새로 운 리정표가 새겨져있다.

올해는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 가 열 리는 뜻깊은 해이다. 우리 당의 붉은 깃발에 인민의 운명을 간직할 때 로부터 가장 수신타성 영랑새를 길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존엄떨치 며 혁명과 건설을 매듭의 한길로 이어 왔다. 대승적 전진성공, 군사상공, 청년장 국으로서의 우리 조국의 불멸의 위용 도, 그 누구도 감히 건드려서는 자부 적인민들의 높은 존엄도 우리 당의 혁명적

정신, 그 기백, 그 열정으로 투쟁한다면 당 제 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수 있다.

오늘 우리 조국은 정치사상강국, 군사 강국으로 온 세상에 존엄을 높이 떨치 고있으며 경제강국건설에서도 끊임없는 비약을 이룩하고있다. 지금이야말로 경제강국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 우리 공화국의 정치국 사적위력을 배양으로 강화하며 인민들 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 리게 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과감히 벌 리야 할 때이다.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선 기를 열어내자! 이것이 시대와 혁명 발전의 요구이며 당의 전투적구호에 서 절실 올해의 거창한 투쟁목표이다. 우 리는 당의 호소마라 뜻깊은 올해에 강성 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폭풍 을 일으키며 함께 전진하자! 한다.

올해의 전투적구호는 불타는 애국 충정으로 심장을 뜨겁게 하는 우리 군 대와 인민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믿음 이 어려졌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뜻으로 떨쳐 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매우는 기적 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 민의 투쟁정신이며 기질이다.

지난해는 뜻깊은 사변들과 경이적인 성과들로 수놓아진 장엄한 투쟁의 해,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 치 승리와 영광의 위풍을 띠었다. 백두산영웅 년발전진과 미미파파자거리, 과학기술전 당을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없이 많으며 1년을 10년 맞잡기로 비약하 며 전진하는 우리 조국의 기상을 과시하 람이다. 하늘에서는 우리가 만든 비행기 가 울고 땅속에서는 우리가 만든 지하전 동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새기고 있다. - 평양방직기계공장에서 -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사상교양사업을 싸고들여

덕성관공 초급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신년사의 사상과 내용을 깊이 새겨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되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우선 신년사강연회를 일으키는데 중점을 두고있다.

신년사강연회를 구체적으 로 세우고 일군들과 초급선진들 군들부터 신년사의 기본사상과 내용을 깊이있게 학습하게 기 초

로동신문 연 전 평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깊이 학습하여 자자구구 배에 새기자

올해 전투승리의 무기로 들어 쥐고

성, 중앙 기관 당 조직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 학습용으로 전당이 발급되었다. 성, 중앙기관들에서 새창에 인공된 신년사 학습용을 통해서도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원수님의 의지를 신념과 비상한 열의를 느끼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꾼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사상과 의도,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합니다.》**

전력공업 일꾼들과 정부원들의 신년사 학습열의가 대단히 높다.

성당조직에서는 일꾼들과 정부원들의 비상한 학습열의에 맞게 학습조직을 잘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일꾼들과 정부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깊이 학습하여 자자구구 배에 새기고 그 과업전철을 위해 자기 부름, 자기 부서의 투쟁목표를 통이 크게 세우며 그 수행방도도 찾게 하는 것, 이것이 성당조직이 내세운 학습전투작전이었다.

새해 이국 당조직의 사상사업

은 국, 처단위로 신년사독보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조직에서는 일꾼들과 정부원들이 신년사의 체계와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직관물들을 대중집합장소와 사무실들에 게시하였다.

그리고 신년사의 사상과 정신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집체강의도 조직하였다. 이것은 온 성에 신년사 학습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주목되는 것은 일꾼들과 정부원들이 올해 신년사에서 전력공업부문을 총진격의 제일 앞장에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도를 깊이 새겨주는 데 중점을 두고 현실과 결부하여 깊이있게 학습하도록 하고있는 것이다.

지나해 전력공업부문에서 이룩한 성과와 교훈을 분석하고 올해 성업에 나선 전투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방도를 찾으며 학습을 심화시켜 진행하도록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실속있게 진행하라는 방도가 있었다.

학습과정에 정부원들 누구나 전력공업부문에 제시된 과업과 방도를 깊이 체득하게 되었으며 뜻깊은 올해의 총공격전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려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한의 돌파구를 열어나갈 불같은 결의를 다지게 되었다.

국도환경보호성에서도 신년사 학습열풍이 새창에 일고있다.

신년사 학습에서 성당위원회가 특별한 중시한 것은 원로학습이다.

올해에 우리가 들고나갈 항구호, 투쟁과업과 방도가 뚜렷이 명시된 신년사의 사상과 정신을 자자구구 심장에 쏘아박게 하자는 것이 당위원회가 신년사 학습에서 내세운 목표였다.

당 조직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원문 그대로 통달한 정부원들의 모범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것은 성인의 일꾼들과 정부원들속에서 신년사원문통달 열풍이 불아지게 하였다. 그 과정에 새 세대 정부원들은 물론 나이가 많은 일꾼들과 젊은이들까지도 원문통달자들이 나서고 있었다.

신년사 학습은 부서와 학습단위 단위로도 활발히 벌어졌다. 학습이 심화될수록 일꾼들과 정부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

과의도를 더욱 깊이 체득하게 되었으며 뜻깊은 올해에 자기 부름, 자기 단위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새창에 일으켜나갈 각오를 굳게 다지게 되었다.

성당위원회에서는 또한 신년사 학습을 성업에 나선 전투적 과업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도를 찾는 과정으로 전환시켜 실효를 거두고있다.

책임일꾼들부터 신년사 학습을 실천과 결부하여 진행하는데 앞장서고있다.

국장, 처장, 당세포비서들과 마주앉은 성당위원회 일꾼들은 실속있는 학습담화를 통하여 일꾼들과 당조직 일꾼들이 신년사를 자자구구 배에 새기고 그 과업을 위한 목표를 통이 크게 세우며 그 수행방도도 정확히 찾아내도록 이끌고있다.

중앙양보장에 나간 당책임 일꾼은 학습담화를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서 가르쳐주시는 전향, 전군, 전민이 펼쳐나갈 산천복지를 본격적으로 벌러나갈 당면과제에 대해 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제기하고 그 대책적인 방도를 찾는 데 중점을 두고 학습지도도 심화시켜

온 나라가 학습열풍이 불는다

나갔다. 그 과정에 일꾼들과 농업원들은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해 자기 단위가 해야 할 새로운 일감들을 더 많이 찾게 되었다.

서판공업성, 금속공업성, 농업성 당조직들에서도 일꾼들과 정부원들속에서 신년사의 기본정신과 내용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있다.

이 과정에 일꾼들과 정부원들은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한의 돌파구를 열자면 자기 단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목표를 통이 크게 세우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진로를 밝힌 전투적기치이다.

성, 중앙기관 당조직들에서는 모든 일꾼들과 정부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깊이 학습하여 자자구구 배에 새기고 그 과업을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떨쳐나서게 함으로써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빛내여야 할 것이다.

본사기자 손영희

막 장

다. 3경관이 아니다. 판방의 모든 경관에서도 학습이 일제히 진행되었다.

막장의 짧은 휴식시간에 펼쳐진 이 하나의 화폭을 통해서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한 단계 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를 보다 높은 석탄생산으로 빛내여가려는 이국 일꾼들과 정부원들의 비상한 양양열의를 엿보게 된다.

새해 첫 전투로 들끓는 미곡벌에서 류달리 눈길을 끄는 사람들이 있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의 선봉원들이다.

농장원들과 함께 집들을 지고 손수레를 끌고가면서 신년사의 사상을 알기 쉽게 해설해주는 제6작업반 3분조 선봉원인 매가본

전투 중의 전투

본사기자 손영희

방사포의 일제

를 들고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함포를 지켜보려는 책임감을 안고 더욱 분발하고자 호소하는 제3작업반 1분조 선봉원, 작업의 열참에 신년사의 내용을 해설해주는 제6작업반 3분조 선봉원...

말 그대로 선봉원들이 방사

사격과도 같이

본사기자 손영희

본사기자 손영희

본사기자 손영희

본사기자 손영희

전투장에서 진행된 항일유격대식군정학습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

지나해 나라의 대성실비생산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여러차례의 감사를 받아온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이 신년사 학습으로 새해 첫걸음을 힘있게 내걸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꾼들속에서 학습을 강화하는 것은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계승되고있는 우리 당의 훌륭한 전통이며 혁명화외의 중요한 방도입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사상과 정신을 일꾼들과 농업원들속에서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학습장소를 일정한 곳에 국한시키지 않았다. 모든 사무실들과 전투현장들을 학습장으로 전환시켰다.

신년사해설강의에 앞서 해당 일꾼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변형기업소당책임일꾼의 말이 인상적이다.

《제국주의자들과의 치열한 대결전지 벌어지는 오늘 우리들이 진행하는 학습은 마당거우밀영과 백색관영에서의 군정 학습과 다를바가 없다고 봅니다.》

항일유격대식 군정 학습, 바로 여기에 학습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것이 령합기업소당위원회가 일꾼들과 농업원들의 신년사 학습에서 중시한 문제였다.

우선 당위원회에서는 기업소 안에 학습분위기를 세우는데 큰 힘을 넣었다.

신년선동부 일꾼들을 발동하여 구내의 곳곳에 올해 우리 당과 인민이 들고나갈 항전투적구호와 신년사의 사상과 정신을 해설하는 직관물들과 표어들을 기둥처럼 세워놓았다.

당위원회에서는 항일유격대식 군정 학습기공을 세우는데서 일꾼들이 앞장서서 도모하도록 하였다.

책임일꾼들이 아침복시공간과 모임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학습정열을 달아보고 단위의 사업과 결부하여 토론을 심화시키도록 하였다.

단위들을 맡고 내려간 일꾼들이 농업원들에 대한 학습지도도 실속있게 진행하니 온 기업소에 신년사 학습열풍이 더욱 새창에 일제 되었다.

발전설비종합직장의 어느 한 현장에 내려가 로동자들과 무를 마주한 당위원회책임일꾼은 전력부문에 총진격의 앞장에서 내달릴 때 신년사의 내용을 놓고 지난해 기업소가 이룩한 성과와 올해 달성해야 할 전투목표와 결부하여 알기

쉽게 해설해주면서 신년사 학습이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되도록 하였다.

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꾼들도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생산현장에서 비탄한 여러 단위를 내려가 현장의 단계를 따라 영리한 한걸음 걸이할 결심이 더욱 굳건해졌다는 청년들적인 이야기.

은 나라 방방곡곡에서 새창에 일어나고있는 신년사 학습열풍을 뜨겁게 느끼게 하는 소식들은 너의 가슴에도 새창 경적

을 불어일킨다. 지금 거리와 일터, 가정과 마을 그 어디에서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대한 학습열풍이 새창에 일고있다.

누구나 학습한다. 일꾼들도 로동자, 농민들도 지식인들도 가정부인들도 지어 나어던 소년단원들과 년로보장을 받고있는 로인들도.

어디에서나 학습열풍이 일고있다. 공장길, 포전길, 마당길에서도, 심심산골의 벌목장에서도, 망망대해 고기배들의 갑판에서도, 평범한 가정집에서도.

수필 진격 나팔소리

《학습은 혁명하는 사람에 게 있어서 첫째가는 임무입니다.》

본사원칙적으로 각지에서 전 화들이 번속 걸러오고있다. 자기네 공장에서 신년사원문통달자들이 많이 갈수록 늘어났다는 당일꾼의 이야기, 당을 따라 영리한 한걸음 걸이할 결심이 더욱 굳건해졌다는 청년들적인 이야기.

은 나라 방방곡곡에서 새창에 일어나고있는 신년사 학습열풍을 뜨겁게 느끼게 하는 소식들은 너의 가슴에도 새창 경적

을 불어일킨다. 지금 거리와 일터, 가정과 마을 그 어디에서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대한 학습열풍이 새창에 일고있다.

누구나 학습한다. 일꾼들도 로동자, 농민들도 지식인들도 가정부인들도 지어 나어던 소년단원들과 년로보장을 받고있는 로인들도.

어디에서나 학습열풍이 일고있다. 공장길, 포전길, 마당길에서도, 심심산골의 벌목장에서도, 망망대해 고기배들의 갑판에서도, 평범한 가정집에서도.

본사기자 최영길

본사기자 손영희

본사기자 손영희

본사기자 손영희

본사기자 손영희

본사기자 손영희

본사기자 손영희

본사기자 손영희

본사기자 손영희

본사기자 손영희

본사기자 손영희

본사기자 손영희

본사기자 손영희

본사기자 손영희

본사기자 손영희

본사기자 손영희

본사기자 손영희

본사기자 손영희

본사기자 손영희

본사기자 손영희

본사기자 손영희

본사기자 손영희

본사기자 손영희

본사기자 손영희

본사기자 손영희

사회주의 농촌을 힘있게 지원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촌을 지원 하는 것은 농촌경제에서 제시된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기본원칙의 하나입니다.》**

평안북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남도에서 사회주의 농촌을 힘있게 지원 하고있다.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농사를 잘 지어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향을 일으켜나갈 불같은 애국의 마음을 안고 장대한 수천의 거름을 자동차들에 싣고 평원군 생산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협동농장포전들에 실어내면서 농장원들을 힘있게 고무해주었다.

신의주시에서는 7만명에 달하는 도급기관, 공장, 기업소와 시, 군들에서 도시거름을 협동농장들에 실어내면서 농촌지원열풍을 일으키도록 강령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도급기관, 공장, 기업소의

프로전들에 실어내면서 농장원들을 새해농사치비에 고무추진하였다.

정주시에서는 시급기관, 공장, 기업소들에서 2만여명의 근로자들이 동원하여 수천의 거름을 77대의 자동차와 164대의 트랙터를 비롯한 운반수단들에 싣고 당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이루어지는

평안남도에서 사회주의 농촌을 힘있게 지원하고있다.

하루동안에만도 평안남도의 도급기관들에서는 많은 도시거름을 화물자동차들에 실어 평원군 화물협동농장에 보내주었다.

당 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키기 위한 작전을 빈틈없이 하고있다.

도인민위원회, 도무역관리국, 도세선관리국에서는 전향, 전군, 전민이 농촌을 힘있게 지원할데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부식도와 도시거름생산에서 모범을 보이며 있다. 이곳 단위들에서는 책임일꾼들이 앞장서서 도시거름을 실어 내기 위한 준비사업을 미리 다그치도록 조직사업을 잘하여 많

신원협동농장과 대흥협동농장 프로전들에 실어내면서 그곳 일꾼들과 농장원들을 고무해주었다.

구성시, 풍천군과 염주군, 함산군과 운산군을 비롯한 여러의 모진 시, 군들에서도 많은 거름을 농장들에 실어냈다.

특파기자 송창윤

은 랑의 질풍은 거름을 마련하였다.

도국도환경보호관리국, 도합사관리국, 도대흥관리국을 비롯한 도급기관들에

특파기자 박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자자구구 배에 새기며 올해전투작전을 짜고들고있다. -농업성에서-

신년사 학습을 실속있게

항주군 장천리당위원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정신과 내용을 일꾼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계획을 단계적으로 세워서 기초하여 당세포비서, 선동원들을 비롯한 초급일꾼들이 아침모임시간과 여러 기회에 독보와 해설모임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신년사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신년사 학습을 통하여 리당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높은 실적을 이룩하고있다.

로동동원원 홍철남

단상

모든 일에서 일꾼들이 앞장을 메고 나서는 여기에 승리의 열쇠가 있다. 간고했던 항일대전

에 우리 일꾼들이 설 위치는 언제나 대오의 맨 앞장이다.

본문 너의 귀에는 우리 일꾼들이 《물결 앞으로!》가 아니라 언제나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지며 강령적 과업의 앞장에 설데 대한

의 그날에도, 불바람이치는 전회의 그날에도 그리고 오늘에도 우리 혁명의 대대기마다 불을 기를 높이 들고 맨 앞장에서 달려나가는 미려한 지휘관들이었다. 우리 일꾼들이 앞장을 메고 나설 때 동포들이 적극 발돋움하여 혁신을 창조해나갈수 있다.

본문 너의 귀에는 우리 일꾼들이 앞장을 메고 나서는 여기에 승리의 열쇠가 있다. 간고했던 항일대전

에 우리 일꾼들이 설 위치는 언제나 대오의 맨 앞장이다.

본문 너의 귀에는 우리 일꾼들이 앞장을 메고 나서는 여기에 승리의 열쇠가 있다. 간고했던 항일대전

에 우리 일꾼들이 설 위치는 언제나 대오의 맨 앞장이다.

본문 너의 귀에는 우리 일꾼들이 앞장을 메고 나서는 여기에 승리의 열쇠가 있다. 간고했던 항일대전

에 우리 일꾼들이 설 위치는 언제나 대오의 맨 앞장이다.

본문 너의 귀에는 우리 일꾼들이 앞장을 메고 나서는 여기에 승리의 열쇠가 있다. 간고했던 항일대전

에 우리 일꾼들이 설 위치는 언제나 대오의 맨 앞장이다.

새해농사치비에 역량있는 청년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남도에서 사회주의 농촌을 힘있게 지원 하고있다.

신원협동농장과 대흥협동농장 프로전들에 실어내면서 그곳 일꾼들과 농장원들을 고무해주었다.

구성시, 풍천군과 염주군, 함산군과 운산군을 비롯한 여러의 모진 시, 군들에서도 많은 거름을 농장들에 실어냈다.

특파기자 송창윤

은 랑의 질풍은 거름을 마련하였다.

도국도환경보호관리국, 도합사관리국, 도대흥관리국을 비롯한 도급기관들에

특파기자 박철



평안북도당위원회

